

외국인 밀집지역 형성에 따른 지역사회 적응과정 연구 -광진구 자양동 중국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조민경* · 장원호**

The Process of Local Adaptation in the Community with High Foreign Population: The Case of Chinese Ethnic Community in Jayang-Dong, Seoul, Korea

Minkyung Cho* · Wonho Jang**

요약 : 본 연구는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이 중국인 밀집 거주지역으로 변모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과 이주민과의 갈등 및 소통, 그에 따른 관계변화에 대하여 문화적응의 관점에서 살펴본 것이다. 이를 위하여 연구자들은 중국인 이주민과 한국인 원주민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조사결과 자양동에서의 원주민과 중국인 이주민의 관계는 타 지역에 비하여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인 유입초기에는 원주민과 이주민이 서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이해와 배려를 바탕으로 한 상호교류를 통해 갈등을 해소하고 서로를 수용하려는 문화적응의 양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는 자동의 공간적인 특징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자양동의 생활권역은 타 지역보다 개방적이며, 원주민과 이주민의 생활공간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아 상호간 교류가 활발해질 수 있었다. 이에 더하여 중국인 이주민은 자양동에서 오랫동안 살고자 하는 정주의식을 바탕으로 주류사회에 융화되는 형태의 문화적응 양상을 보였다. 본 연구는 한국에 정주(定住)하려는 외국인 이주민과 지역주민의 문화적응 과정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외국인 이주민과 지역 원주민의 소통이 서로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경감시키고 공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주요어 : 자양동, 문화적응, 중국인 밀집지역, 문화다양성

Abstract : This paper looks into the process of the formation of a Chinese ethnic place in Jayang-dong, Gwangjin-gu. In doing so, the paper reviews Chinese immigrants with the approach of cultural adaptation. Specifically, in-depth interviews with both Chinese immigrants and Korean native people in Jayang-dong has been conducted to analyze the local residents' reaction to the Chinese immigrants, the conflicts between the natives and the Chinese immigrants, and communications among them. Based on the analyses, the paper recognizes the change of relationship between the natives and the Chinese immigrants in the development of the ethnic place.

본 논문은 2014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사회과학연구지원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4S1A3A2044638).

본 논문은 저자의 석사학위논문을 수정 보완하였음.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과 박사과정(Doctoral Student, Department of Urban Sociology, University of Seoul)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과 교수(Professor, Department of Urban Sociology, University of Seoul, wjang@uos.ac.k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Korean native people and Chinese immigrants in Jayang-dong turns out to be more positive than that in other Chinese towns. In Jayang-dong, in the early period of the formation of the area, the Korean native people and Chinese immigrants used to have conflicts. However, as time goes by, the conflicts has been resolved and they have embraced each other through interchanges between them based on mutual understanding and consideration. Cultural adaptation in Jayang-dong has occurred in the way that the immigrants have been integrated into the mainstream society based on the connectedness with both the native people and immigrants embracing each other.

Key Words : Jayang-dong, cultural adaptation, Chinese ethnic place, cultural diversity

1. 서론

외국인의 국내 유입은 80년대 후반 이후 노동이민, 결혼이민 등으로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2000년대 이후에는 외국인 유학생, 재외동포의 역이민 등으로 다양한 계층의 외국인이 유입되고 있다. 최근 국내 체류 외국인의 양적증가로 외국인 밀집지역¹⁾이 팽창되면서, 지역사회에 미치는 외국인 이주민의 영향, 원주민과 외국인 이주민과의 갈등, 사회통합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이민사의 흐름에 따라 외국인 이주민관련 논의의 주제도 변화하였다. 초기 연구는 외국인 노동자, 이주여성 등 특정 계층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그 후, 외국인 밀집 거주지가 형성되면서,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한 공간적 특성, 지역 원주민과 외국인 이주민의 갈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최근에는 갈등해소와 사회통합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외국인 이민자가 한국사회에 어떻게 적응해가며 한국인이 외국인 이민자를 사회구성원으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관한 연구가 조명을 받고 있다.

한국인 원주민과 외국인 이민자의 갈등해소 및 사회통합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이민자가 한국사회에 적응하며 겪는 갈등과 함께 한국사회

의 반응을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한국인 원주민들이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외국인 지역주민 증가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 등의 주제에 관한 연구는 아직 미미한 실정이다. 즉, 외국인 이주민의 한국사회 적응과정에 대한 연구 못지않게, 외국인 이주민 유입에 대한 한국인 원주민들의 적응과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외국인 밀집지역 내의 한국인 원주민과 외국인 이주민의 관계 변화를 문화적응(acculturation)²⁾의 관점에서 바라보고자 한다. 그러나 다문화사회로의 변화에 대한 한국사회의 전반적인 반응에 대하여 연구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외국인 밀집거주지역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해당 지역주민의 의식변화를 관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자양4동 중국인 밀집지역을 연구지역으로 선정하고, 이주외국인과 한국인 원주민의 문화접촉의 형태와 상호간의 인식 변화를 심층 인터뷰를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인터뷰 분석을 통하여 자양4동이 중국인 밀집지역으로 변모하는 과정에서의 지역주민의 반응, 지역주민과 이주민의 갈등, 소통, 관계 및 의식의 변화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다.

2. 이주민의 문화적응과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한 연구동향

1) 이주민의 문화적응 연구 동향

초기의 이주민의 문화적응에 대한 연구는 파크(Park, 1950), 고든(Gordon, 1964) 등이 주장한 동화(assimilation)의 관점에서 진행되었다. 동화는 소수민족 혹은 이주민은 주류사회로 편입하기 위하여 다수집단의 문화를 일방적으로 수용한다는 주장으로, 복합적인 문화적응을 설명하는데 적절하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았다(Richard *et al.*, 1997).

이러한 일방적인 문화적응이론을 보완하기 위하여 문화적응(acculturation) 관점에서의 문화적응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문화적응은 ‘한 개인이 어떠한 다른 문화를 접할 때 그에게 일어나는 문화적 변화와 적응의 과정’(Gibson, 2001) 혹은 ‘문화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새로운 문화에 지속적으로 직접적으로 접촉함에 따라 발생하는 현상’(Redfield, Lintron, & Herskovits, 1936)으로 정의되며, 이민자와 원주민의 상호작용을 통한 문화적응을 설명하는 개념이다.

베리(Berry, 1997)는 이러한 문화적응 과정을 통합(integration), 동화(assimilation), 분절(segregation), 주변화(marginalisation)의 개념을 통하여 다차원적으로 설명하였다. 동화(assimilation)는 기존의 파크와 고든이 설명한 개념과 동일한 자신의 고유문화를 유지하지 않고 주류사회의 문화를 흡수하는 형태이다. 반면, 모국문화를 유지하고 주류사회의 문화를 수용하지 못하는 현상인 분절(segregation)은 보통 차이나타운과 같은 격리된 민족 집단 거주지(enclave)의 형태로 나타난다. 모국문화를 유지하지 않으나 주류사회에서도 소외되는 상태인 주변화(marginalisation)는 대부분 사회·경제적으로 하위계층을 형성하여 주류문화에

반발하는 행동을 보인다(윤인진, 2004). 통합은 집단처럼 자신이 갖고 있던 고유의 문화를 유지함과 동시에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는 현상으로 이중문화적 정체성을 가질 수 있다는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정진경 외, 2004).

국내의 문화적응에 대한 연구는 이주민이 이주 국가의 주류사회에 적응하는 과정(강재원, 2012; 김영로, 2011; 문성준, 2008; 설동훈, 1997; 송도영, 2011; 윤인진, 2004; 정수열, 2008; 조창환 외, 2010)을 주로 다루고 있으며, 대부분 외국인 이주민의 문화적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일부 연구에서 외국인 이주민의 증가로 인한 원주민의 반응을 다루고 있으나(이영민 외, 2012; 이용균 2013), 외국인 이주민과 한국인 원주민의 문화적응 과정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다.

2) 외국인 밀집지역 연구 동향

외국인 밀집지역에 관련된 논의는 크게 공간과 관련된 연구와 커뮤니티에 관한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공간과 관련된 논의는 밀집지역의 분포, 거주지 분리 현상에 주목한다. 2000년대 초반에는 외국인 노동자 거주지 분포를 분석하는 연구(강민조, 2003; 박배균, 2003; 정연주, 2001; 최재현 외, 2003)가 진행되었고, 이후 외국인 노동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전문직 외국인 등 다양한 계층의 국내 체류 외국인의 공간분포에 대한 연구(김민영 외, 2012; 박윤환, 2010; 박세훈 외, 2009; 안건혁, 2011; 이진영, 2011; 이혜경, 2012; 하성규 외, 2011; 홍석기 외, 2010)로 확대되었다. 외국인 밀집지역이 국적 및 민족에 따라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특정 국가 출신의 외국인 밀집지역의 공간분포(강은택 외, 2012; 김의준, 2011)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었다.

또한, 특정 지역의 에스닉 커뮤니티 형성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정지역에서의 장소성, 커뮤니티 구성원의 정체성 변화, 문화적응에 대한 커뮤니티

표 1. 2014년 서울시 등록 외국인 수 상위 7개 자치구: 국적별

(단위: 명)

구분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광진구	용산구	동대문구
외국인 수	39,084	31,300	19,567	18,774	14,021	13,963	12,632
한국계중국인	32,577	25,679	16,196	12,696	7,792	11,201	3,993
중국인	4,596	4,039	2,097	2,789	3,944	2,005	4,382
기타	1,911	1,582	1,274	3,289	2,285	757	4,257

출처: <http://stat.seoul.go.kr>

구, 광진구는 한국계 중국인 인구 상위 5개 자치구와 일치하며, 서울 내의 한국계 중국인의 66%가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2) 자양4동 중국인 밀집지역 형성

자양4동은 한국계 중국인 및 중국인 거주인구가 서울에서 5번째로 많은 광진구에 속한 지역으로, 대림2동 등과 비교했을 때 한국계 중국인 및 중국인 거주인구의 절대적인 규모와 동 전체 인구대비 한국계 중국인 및 중국인 인구 비중은 작은 편이다. 그러나 2007년부터 5년 동안 자양4동의 한국

계 중국인 및 중국인 인구 비율은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동 전체 인구 대비 한국계 중국인 및 중국인의 비율이 10%를 넘어섰다. 서남부 밀집지역을 제외했을 때, 가장 한국계 중국인 및 중국인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이다.

자양4동 지역의 한국계 중국인 및 중국인은 2000년 이후 취업비자기준이 완화되어 국내 한국계 중국인 수가 증가하던 시기에 유입되기 시작하였다. 성수공업지역이 쇠퇴하고(이석준 외, 2014), 2000년대 초반 국가에서 실시한 뉴타운 정책으로 자양4동 일부지역(당시 노유동)이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되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임대료가

표 2. 자양4동 거주 한국계 중국인 현황

연도	광진구 등록 외국인 수(명)	자양4동 한국계 중국인(명)	광진구 등록 외국인 대비 자양4동 한국계 중국인 비율
2002년	1,967	84	4.3%
2003년	3,730	207	5.5%
2004년	4,144	777	18.8%
2005년	4,867	1,549	31.8%
2006년	7,098	1,618	22.8%
2007년	9,795	2,560	26.1%
2008년	11,772	2,911	24.7%
2009년	12,515	2,961	23.7%
2010년	13,312	2,723	20.5%
2011년	14,737	3,141	21.3%
2012년	12,956	2,936	22.7%
2013년	12,512	2,981	23.8%
2014년	14,021	3,621	25.8%
2015년	14,811	3,717	25.1%

출처: <http://stat.seoul.go.kr>

저렴하였다. 특히 재개발예정지역의 임대료가 저렴하고 노후한 단독주택으로 중국인 및 한국계 중국인이 유입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자양4동 지역은 2호선과 7호선이 교차하는 건대입구역 주변에 위치하고, 1990년대 초반, 성수공단에서 근로하던 한국계 중국인, 중국인 노동자를 위해 생겨난 요식업체도 위치하여, 중국인 및 한국계 중국인의 거주 선호도가 높아졌다.

2000년대 초의 노유거리(현 중국음식문화거리)는 저층의 낙후된 빌딩이 늘어선 지역으로 책대여점, 오락실, 비디오대여점 등 사양 산업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오래된 다가구 및 다세대 주택이 다수 분포하고 있으며, 상권이 발달하지 못하여 건대 맛의 거리, 로데오거리 등과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으나,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저렴하였다. 한국계 중국인, 중국인의 유입이 증가하면서 이 노유거리(현 중국음식문화거리)를 중심으로 그들을 주요 고객으로 하는 상점, 음식점이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2007년 방문취업제 이후 한국계 중국인의 유입



그림 2. 자양4동 일대 중국인 밀집지역
출처: 네이버 지도

이 더욱 증가하며, 자양4동의 한국계 중국인 및 중국인도 자연스럽게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식료품 및 요식업체 위주로 형성되었던 노유거리에 한국계 중국인,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사, 환전소, 직업소개소 등이 들어섰다.

이 때 생겨난 요식업체 중 양꼬치 음식점 등이 매스컴에 소개되면서 한국인들도 해당 지역을 방문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블로그, SNS의 확산으로 인한 ‘맛집’ 탐방, 에스닉 요리에 대한 선호도 상승 등도 해당 지역을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후, 노유거리의 상권이 부활하여 광진구는 해당지역을 중국음식문화거리로 지정하였다. 또한, 2012년 서울지점, 대림지점에 이어 세 번째로 중국상업은행 건대점이 개점한 것은 자양4동 한국계 중국인 밀집지역의 성장을 보여준다.

3) 자양4동 중국인 밀집지역의 특성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에는 한국계 중국인의 약 10%에 해당하는 중국인이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세 지역은 중국인 밀집지역이 아닌 한국계 중국인 밀집지역으로 분류된다. 반면, 광진구에는 중국인 약 4,000명, 한국계 중국인이 약 8,000명 거주하고 있어, 다른 지역에 비하여 한국계 중국인과 중국인 거주자 수의 차이가 적은 편이다.

또한, 타 지역에 비하여 다양한 사회계층으로 구성된 커뮤니티를 보유하고 있다. 자양4동의 한국계중국인, 중국인 커뮤니티는 주변 건국대학교, 한양대학교, 세종대학교에 통학하는 유학생 계층, 성수공단의 공장 노동자 계층, 중국음식문화거리에서 산업을 경영하는 자영업자, 전업주부, 서비스업 종사자 등의 사회계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가리봉동에 비하여 다양한 연령층이 공존하고 있으며, 가리봉동, 대림동 등의 서남부 한국계 중국인 밀집지역에서 이주하였거나, 가족을 동반

장기체류자의 비율이 높다(방성훈, 2012). 이들이 밀집 거주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은 한국계 중국인 및 중국인 지역 커뮤니티가 존재하고 관련 시설이 있는 곳을 선호하는 한국계 중국인 및 중국인의 거주지역 선택특징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원중서; 2013).

중국음식문화거리를 중심으로 요식업체, 식료품점, 환전소, 여행사, 직업소개소 등의 한국계 중국인, 중국인의 커뮤니티가 형성되어있다. 환전서, 여행사, 직업소개소 등은 업태의 특성상 한국인 원주민의 방문이 거의 없으나, 요식업체, 식료품점은 한국인 원주민, 타 지역의 한국인에게도 개방된 형태를 보인다. 인터넷 상에서 유명한 ‘맛집’도 다수 존재하며 배달요리만 생각하던 중국 요리가 에스닉 레스토랑으로 고급화되어 매스컴에 소개되며 타 지역에서도 자양4동 중국음식문화거리를 찾아오는 등 한국인, 중국인, 한국계 중국인에게 개방된 에스닉 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

또한, 중국음식문화의 거리 주변의 로테오거리, 건국대학교, 스타시티, 이마트, 롯데백화점, 건대맛의 거리 등 다양한 종류의 생활권역을 한국인 원주민과 함께 공유하고 있다. 가족을 동반한 장기체류자들은 자녀를 주변 학교에 통학시키고 있어 같은 반, 같은 학교 학부모와의 교류도 이루어진다.

다른 지역의 한국계 중국인 밀집지역의 한국계 중국인 커뮤니티는 한국계 중국인 위주의 노동자 계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지역사회와 폐쇄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반면, 자양4동은 다른 지역과 달리 다양한 구성원이 존재하는 개방된 커뮤니티의 성격을 보인다. 이러한 특성은 자양4동 원주민과의 관계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4. 심층 인터뷰를 통한 원주민과 이주민의 문화적응 분석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0년대 초반 한국계 중국인 및 중국인의 밀집 거주지는 주로 서울 서남부의 가리봉동 일대에 국한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후 한국계 중국인 및 중국인의 밀집 거주지가 분화되면서 자양4동 일대로 한국계 중국인 중심의 밀집 거주지가 형성되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이주외국인과 한국인원주민의 문화접촉의 형태와 상호간의 인식 변화를 심층 인터뷰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나아가 두 집단의 문화접촉이 이주외국인의 지역사회로의 편입과 한국인원주민이 이주외국인을 지역주민으로써 수용에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 분석하였다.

1) 심층 인터뷰 개요 및 응답자의 일반 특성

방문취업제의 실시로 한국계 중국인의 유입이 급증한 2007년 이후, 자양4동(구 노유동)에 한국계 중국인이 유입이 증가하면서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자양4동에 중국인 밀집 거주지역이 형성되기 시작한 2008년 이전에 자양4동에 전입 및 개업한 사람을 중심으로 2012년 1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약 6개월에 걸쳐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는 한국인, 한국계 중국인, 중국인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한국인 인터뷰대상자는 중국인, 한국계 중국인과 같은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는 집주인, 이웃, 그리고 한국인 대상 서비스업 및 요식업 종사자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비교대상으로 중국인, 한국계 중국인과 접촉이 없는 한국인 지역주민에 대해서도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한국계 중국인과 중국인도 자양4동에 거주하는 자, 중국인 및 한국계 중국인 대상 서비스업 및 요식업 종사자를 인터뷰 대

표 3. 심층인터뷰 대상자

가명	연령대	성별	구분	거주기간(직업)	설명
A	60대 중	여	한국인	20년(전업주부)	한국계 중국인 세입자를 둔 집주인
B	60대 후	남	한국인	40년(자영업)	중국인 세입자를 둔 집주인
C	40대 중	여	한국인	12년(전업주부)	중국인 이웃을 둔 주민
D	30대 초	여	한국인	32년(회사원)	한국계 중국인 이웃을 둔 주민
E	30대 초	남	한국인	9년(회사원)	한국계 중국인 및 중국인과 접촉이 없는 지역주민
F	30대 중	남	한국인	10년(핸드폰판매)	한국인 대상 서비스업 종사자
G	40대 초	남	한국인	15년(요식업)	한국인 대상 서비스업 종사자
H	30대 초	여	한국계중국인	8년(요식업)	한국계 중국인 요식업 종사자
I	30대 초	남	한국계중국인	6년(여행사직원)	중국인 및 한국계 중국인 대상 서비스업 종사자
J	30대 중	여	한국계중국인	7년(식료품판매)	중국인 및 한국계 중국인 대상 서비스업 종사자
K	40대 중	여	중국인	6년(서비스업)	자양4동에 거주하는 중국인
L	30대 후	남	한국계중국인	5년(서비스업)	자양4동에 거주하는 한국계 중국인
M	30대 중	남	한국계중국인	6년(서비스업)	한국계 중국인 및 중국인 대상 소식지 발간업체
N	20대 후	남	중국인	7년(회사원)	자양4동에 거주하는 중국인, 한국 소재 대학 졸업

상으로 선정하였다. 자양4동에 대한 한국계 중국인 및 중국인의 외부적인 시각에 대한 면담을 위하여 한국계 중국인 및 중국인 대상 소식지 발간업체 종사를 대상으로도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구체적인 인터뷰 대상자 목록은 이상과 같다.

2) 원주민과 이주민의 접촉 증가

자양4동은 성수공단과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어 2000년대 이전에도 소수의 외국인 노동자가 거주하던 지역이었다. 하지만 지역사회에서 외국인 노동자와 같은 지역에서 생활한다는 인식은 거의 자양4동에서 외국인 이주민은 중국인의 한국 유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00년대 이후에야 한국인 원주민 사이에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자양4동에 10년 이상 거주한 C와 D의 인터뷰에서도 성수공단 외국인 노동자는 현재 자양4동에 거주하는 한국계 중국인 및 중국인에 비하여 그 존재감이 약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어떻게 지냈는지 아세요?) 전에? 음. 몰라. 자기들 동료들이랑 놀았겠지 뭐. 잘 몰라” (C, 여, 40대 중반, 한국인, 중국인 이웃을 둔 주민)

“동네에서 본 적도 없고…자기네들끼리 외국어로 이야기하니깐…여튼 (외국인들이 동네에) 있는지 없는지 잘 몰랐죠.” (D, 여, 30대 초반, 한국인, 한국계 중국인 이웃을 둔 주민)

C와 D는 성수공단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자양4동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있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성수공단의 외국인 노동자는 지역 사회의 일원이 아닌 그들만의 공동체에서 생활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는 C, D와 외국인 이민자의 직접적인 대면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소문, 이야기에 무관심했다 것은 외국인 노동자와 지역사회의 교류가 많지 않았기 때문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성수공단 외국인 노동자의 존재감이 미미했던 또 다른 이유는 가시적으로 이들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당시에는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시설 및 상점이 거의 없었다. 거리에서 가끔 보통의 한국인과는 다른 외모를 지닌 외국인 무리나 외국어로 대화하는 사람과 마주치면서 외국인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으나, 같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인식하고 있지는 않았다.

반면, 중국음식문화거리가 형성되고, 중국어로 쓰인 간판이 늘어나면서 외국인이 지역사회에 유입되었다는 것을 인지하기 시작하였다. 한국계 중국인 및 중국인과의 직접적인 접촉이 없는 E와 요식업에 종사하는 G도 중국어로 쓰인 간판이 늘어난 것을 통하여 자양4동에 한국계 중국인과 중국인이 늘어났으며, 이들이 주변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기 시작하였다.

“(한국계 중국인이) 많다는 것보다 밖에 이것저것 좀 생소한 것들이 생기니까 정말 많은가보다 하죠. 이제는 시장으로 걸어오다 보면 중국어 간판이 보이구요.” (E, 남, 30대 초반, 한국인, 한국계 중국인 및 중국인과 접촉이 없는 지역주민)
 “어찌다가 한국말 어눌한 애들이 와서 밥 먹고 가는 건 있었고...(외국인들이 많이 사는지) 잘 몰랐지. 그냥 좀 있구나. 했지.” (G, 남, 40대 초반, 한국인, 한국인 대상 요식업 종사)

이러한 가시적인 간접적 접촉과 함께 한국계 중국인, 중국인과 직접적 접촉도 나타났다. 다세대 주택 소유주는 세입자로, 원주민 세입자는 이웃으로, 상업 종사자는 경쟁 혹은 이웃 상점을 통하여 외국인 이주민과 한국인 원주민의 경제·사회적 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요 앞에 중국인 거리(중국음식문화거리)있잖아요. 처음에는 그냥 중국인 식품 파는데 한두 개 있다가, 갑자기 식당들이 막 생기더라고요. (조선족이 이사 온 것은) 2010년? 최근이예요.” (D, 여, 30대 초반, 한국인, 한국계 중국인 이웃을

둔 주민)

“처음엔 그냥 새로운 가게가 생기나 했지 뭐. 그때는 식당이 생겼다 없어지고 생겼다 없어지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조금씩 더 생겼지. 한 삼년 된 것 같아.” (G, 남, 40대 초반, 한국인, 한국인 대상 요식업 종사)

자양4동에서의 지역주민과 외국인 이주민의 접촉은 중국어로 쓰인 간판, 중국인이 운영하는 상점 개업 등 가시적인 접촉과 사회·경제적 관계를 형성하며 생활권에서의 직접적인 접촉 두 가지의 형태로 나타났다. 자양4동 지역주민은 가시적인 접촉을 통해 외국인 이주민의 증가를 알고 있었음에도 직접적인 접촉이 있는 후에야 생활권을 공유하며 외국인 이주민이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이는 기존의 국내 체류 외국인들에 대한 산업영수생제도 등을 통해 잠시 머물다가 계약기간이 끝나면 돌아가는 방문자로서의 이미지, 외국인 이주민의 사회 및 경제적 계층을 낮출 것이라는 편견으로 자양4동 지역에 본인들과 같이 생활한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자양4동 지역에 외국인 이주민이 증가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자양4동 지역주민들은 외국인 이주민이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경제적인 불이익이 올 것이라는 반감을 드러냈다. 특히, 다세대 주택, 단독주택 등에서 나오는 월세로 생활하는 집주인들이 한국인 세입자의 감소, 집값의 하락 등, 서비스업 종사자는 한국인 고객의 감소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중국인 많아지고 시끄러워지면 집값 떨어질까 봐 싫었지. 왜 중국인들은 좀 지저분하잖아. (그러면 왜 세입자로 받으셨나요?) 방을 놀릴 순 없으니까 일단 받아보자 뭐 그랬던 거지” (A, 여, 60대 중반, 한국인, 한국계 중국인 세입자를 둔 집주인)

“중국사람들 많아지면 좀 그렇잖아. 가리봉쪽 그 쪽 처럼”(E, 남, 30대 중, 한국인, 한국인 대상 서비스업 종사자)

이는 자양4동보다 먼저 중국인, 한국계 중국인 밀집지역으로 변모한 가리봉동, 영등포, 안산지역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집주인과 지역상인 모두 경제적 불이익 발생 가능성에 대한 반감을 나타냈다. 집주인의 경우, 다세대 혹은 다가구 주택에서 생활하며, 마당, 대문 등 일부 생활 공간을 공유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외국인 이주인을 잠시 머물러 떠나는 사람으로, 이들과 자양4동 일대의 생활권역을 공유하는 지역주민이라는 인식이 부족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원주민과 이주민 사이의 오해와 갈등

자양4동 지역에서도 서남부 한국계 중국인 밀집지역과 유사한 지역주민과 한국계 중국인, 중국인과의 갈등현상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갈등현상은 한국계 중국인, 중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에서 비롯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가리봉동, 대림동 지역에서 거론되는 중국인 밀집지역의 문제점이 자양4동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불안감으로 지역주민은 외국인 이주인에 대해 차별, 배제의 형태로 반감을 표시하였다.

“근처에 많아도 마주치진 않지만, 같이 살면 시끄러울 것 같고, 불편할 것 같기도 해요. 좀 꺾 꺾쪼 아무래도, 그냥 말투도 사납고 왜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조선족들. 안 마주치는게 좋죠”(E, 남, 30대 초반, 한국인, 한국계 중국인 및 중국인과 접촉이 없는 지역주민)

한국계 중국인 및 중국인과 접촉이 없는 지역주민도 외국인 이민자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었다.

지역주민들은 한국계 중국인들이 시끄럽고 말투가 사나워 대화가 힘들고, 마주하고 싶지 않은 대상이어서, 같은 지역에서 생활한다는 것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래서 지역주민은 외국인 이주민 집단과의 접촉을 꺼려하는 경향을 보였다.

“중국애들 시끄럽기로 유명하지. 중국어로 막 떠들면 너무 시끄러워. 뭐라고 하는지도 모르겠고.”(A, 여, 60대 중반, 한국인, 한국계 중국인 세입자를 둔 집주인)

“중국사람들이 밑에 처음에 살기 시작했을 때는 친구들 데려오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안 좋게 생각할까봐.”(D, 여, 30대 초반, 한국인, 한국계 중국인 이웃을 둔 주민)

“침부터 조선족 애들을 어떻게 믿어....(나중에는) 집이 잘 안 나가서 계약 했지. 지내보니까 (생각)하는게 좀 다르긴 해도 그렇게 나쁜 건 없더라고. 지낼만해.”(B, 남, 60대 후반, 한국인, 중국인 세입자를 둔 집주인)

한국계 중국인 세입자를 둔 집주인 A와 한국계 중국인 이웃을 둔 D는 한국계 중국인 이웃이 생겼으며, 같은 건물에서 생활한다는 것을 불편해하고 있었다. D의 경우, 한국계 중국인 이웃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자신뿐만 아니라, 친구들에게도 불편한 부분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반면, A와 D 모두 불편함을 주는 대상자를 명확히 알고 있음에도 상대와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한국계 중국인, 중국인은 말을 해도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오해와 외국인 이민자와의 접촉에 대한 두려움이 그 원인으로 보인다.

자양4동에 한국계 중국인, 중국인이 운영하는 상점이 생겨나자, 한국인 자영업자는 한국계 중국인, 중국인의 증가로 한국인의 방문빈도가 낮아짐에 따라 매출이 하락하는 경제적 손해가 올 것으로 예상하였다. 하지만 중국음식문화거리 활성화

화로 주변 상권이 더 활발해져 자연스럽게 매출이 증가하고, 중국계 한국인, 중국인 상인들이 지역 사회에 적응하면서 부정적 인식이 변화하였다.

“조선족이 한국에 왜 왔겠어 돈 벌러 왔지. …여기저기 너무 지지분하게 쓰고 엄청 싸웠어. (지금도 별로 안 친하세요?) 지금은 서로 잘 하니까 친하지.” (G, 남, 40대 초반, 한국인, 한국인 대상 요식업 종사)

또한, 치안이 불안해 지는 것에 갈등도 존재하였다. 중국음식문화거리에서 술을 먹고 싸우는 한국계 중국인, 중국인이 종종 목격되면서 이에 대한 지역사회와의 갈등을 야기했다. 한국인 원주민들은 이러한 현상이 심화되어 가리봉동, 대림동 등지에서 발생하는 한국계 중국인, 중국인 관련된 폭행, 살인 등의 강력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하여 불안해하고 있었다.

“조선족은 칼 들고 싸운다잖아. 에휴.” (G, 남, 40대 초반, 한국인, 한국인 대상 요식업 종사)

“중국에들은 싸우면 끝장을 보잖아. 지네 나라 말로 하면 뭐라고 하는지도 모르겠고.” (B, 남, 60대 후반, 한국인, 중국인 세입자를 둔 집주인)

한편, 한국계 중국인, 중국인도 한국인 원주민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었다. 한국계 중국인, 중국인은 한국인 원주민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한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내가 말하면 알잖아요. 조선족인지 한국사람인지 그러면 태도가 바뀌는거지. 기분도 나쁘니까 가끔 싸우기도 했죠. 그래도 다 그런 건 아니니까” (K, 여, 40대 중반, 중국인, 자양4동에 거주하는 중국인)

“한국어도 잘 못할 때는 무시 많이 했어요. 학교 다니면서 동네에서 알바했는데, 술 취해서 조선족(은) 집에 가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N,

남, 20대 후반, 중국인, 자양4동에 거주하는 중국인)

이러한 서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외국인 이주민과 지역주민 사이의 갈등을 야기했다. 가장 큰 원인은 서로에 대한 이해와 신뢰가 부족하여 부정적인 시간으로 서로를 대했기 때문이다. 한국인 원주민은 중국인, 한국계 중국인은 매너가 나빠서 상식에서 벗어난 행동을 한다는 등의 편견을 갖고 있었다. 외국인 이주민 또한 한국인에게 사기를 당하거나 무시를 당했다는 주변의 경험담을 접하며 한국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되었다. 한국인 원주민과 외국인 이주민 모두 자신이 속한 에스닉 그룹과 다른 배경을 가진 집단과의 생활에 대한 두려움과 서로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상태에서 접한 부정적인 소문으로 편견과 오해를 갖고 있었다.

자양4동에서 한국인 원주민은 한국계 중국인, 중국인과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며 이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여전히 한국계 중국인, 중국인은 여전히 자신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존재하며, 이로 인해 지역사회에서 종종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자양4동에서의 한국인 원주민, 외국인 이주민간의 갈등은 한국인 원주민의 경제적 불이익에 대한 우려, 외국인 이주민의 차별에 대한 반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경향을 보인다.

4) 원주민과 이주민의 소통과 수용

원주민과 이주민의 갈등은 서울 타 지역의 중국인 밀집지역의 사례처럼 지역사회와 한국계 중국인 및 중국인 집단의 갈등으로 인한 한국계 중국인, 중국인 커뮤니티의 분절(segregation)을 야기하기도 한다(방성훈, 2012). 한편 자양4동에서는 한국계 중국인 및 중국인 집단과 한국인 원주민 집단은 갈등하는 양상을 보이면서도, 대화와 소통

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는 타지역에 비하여 다양한 사회계층의 한국계 중국인 및 중국인이 분포하며, 지역사회에 개방적인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우리 애가 같은 반 친구를 데려왔는데, 말투가 좀 이상해서 물어봤더니 엄마 아빠가 중국인이라는거야. …개네 엄마랑 시장에서 몇 번 마주치고 이야기 하고” (C, 여, 40대 중반, 한국인, 중국인 이웃을 둔 주민)

“양꼬치 그거 먹으러 놀러가기도 하고, 우리집에서 핸드폰 시간 사람들이랑도 인사하고, 그러죠” (F, 남, 30대 중반, 한국인, 한국인 대상 핸드폰 판매업 종사)

한국인 원주민과 외국인 이주민 사이의 대화와 소통은 서로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줄여나가는 긍정적인 도구로써 작용하고 있었다. 한국인 원주민과의 외국인 이주민에게 한국사회의 삶의 방식에 대해 설명하며 갈등을 줄여나갔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인 원주민은 외국인 이주민과 생활하며 발생하는 문제 및 갈등을 대화로써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처음엔 위아래가 없다고 생각했지. 이사 온 첫날에 정리하고 있길래 가서 내가 이것저것 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줬는데 듣는 등 마는 등. 대답도 제대로 안 하고. …내가 좀 억양에 사투리가 있으니까 그냥 화내는 줄 알았데. 나도 많이 미안하더라고.” (B, 남, 60대 후반, 한국인, 중국인 세입자를 둔 집주인)

외국인 이주민은, 한국인 원주민과 외국인 이주민간의 대화와 함께, 자양4동 외국인 이주민 커뮤니티 내에서 이루어지는 대화와 소통을 통해 신규 외국인 이주민들은 자양4동 지역사회에 대해 적응해 나가고 있었다. 2000년대 이후에 유입된 외

국인 이주민들은 1990년대부터 이 지역에 존재하였던 한국계 중국인, 중국인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국내외 다른 지역에서 자양4동으로 전입한 외국인 이주민들이 자국에서 자양4동으로 유입된 중국계 한국인 및 중국인에게 한국생활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

“중국에서 여기로 바로 왔어요. …우리(한국계 중국인)사람들 모이는 곳도 있고, …여기 와서 알게 된 사람들이 많이 도와주기도 했어요.” (H, 여, 30대 초반, 한국계 중국인, 한국계 중국인 및 중국인 대상 요식업 종사자)

“이전에는 영등포 살았는데 남편도 한국에 들어오게 되어서 여기로 왔어요. …아무래도 한국사람들이랑 장사하니까 조금 눈치보이고 그랬는데, 저 쪽 위에 (식당에서 일하는) 먼저 온 언니가 아주머니들 소개시켜주고 그래서 친해지니까 편했어요” (J, 여, 30대 후반, 한국계 중국인, 한국계 중국인 및 중국인 대상 식료품 판매업 종사자)

한국인 원주민과 외국인 이주민간의 대화와 소통으로 서로에 대한 편견과 오해로 인한 부정적인 인식이 변화하였고, 이로 인하여 갈등이 줄어들고 있었다. 외국인 이주민들은 자신과 비슷한 사회계층의 한국인 원주민들과 직접적인 소통을 하며 공감대를 형성하며 교류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자양4동 지역에서는 타 지역에 비하여 대화와 소통 과정에서의 지역사회와의 마찰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계 중국인 및 중국인의 한국 체류 기간이 길어 한국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거나, 해당 지역에서 생활하던 한국계 중국인, 중국인을 통하여 지역사회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진행되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자양4동 지역에서의 대화와 소통은 한국인 원주민과 외국인 이주민간의 편견과 갈등을 줄이며 원

주민과 이주민의 관계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전까지 한국사회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식은 돈을 벌고 한국을 떠나는 외국인에 가까웠다. 그래서 국내 체류 외국인, 특히 외국인 노동자에게 지역사회의 구성원이라는 정체성을 부여하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생활한다는 인식이 부족하였다. 하지만 자양4동의 한국인 원주민은 외국인 이주민과 자양4동에서 함께 생활하는 자양4동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인정하는 경향을 보인다.

“계속 살거 잘 지내야지”(A, 여, 60대 중반, 한국인, 한국계 중국인 세입자를 둔 집주인)
 “그냥 한 동네에 같이 사니까 잘 지내야죠.”(E, 남, 30대 초반, 한국인, 한국계 중국인 및 중국인과 접촉이 없는 지역주민)

외국인 이주민 인터뷰 대상자는 자양4동 지역에 5년 이상 체류한 장기체류자로 해당지역의 생활여건에 대하여 만족하고 있었다. 또한 가능한 한국에 계속 체류하기를 원하고 있었으며, 장기 체류를 하더라도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할 의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양4동에 꽤 있었지요. 못해도 3년은 여기 더 있을 것 같아요.”(J, 여, 30대 후반, 한국계 중국인, 한국계 중국인 및 중국인 대상 식료품 판매업 종사자)
 “고등학교 졸업하고 계속 이 근처에서 살았죠. 동네도 좋고, 가끔 중국보다 여기가 편해요.(언제까지 한국에 있어요?) 일하니까 계속 살죠.”(N, 남, 20대 후반, 중국인, 자양4동에 거주하는 중국인)

자양4동 지역사회에서 한국인 원주민과 외국인 이민자는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써 함께 생활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함께

생활하기 위하여 상호 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상호 노력을 통하여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생활권역을 공유하며 잦은 접촉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대화와 소통으로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와 같은 자양4동 지역의 특징으로 원주민과 외국인의 관계가 유입초기의 부정적인 관계에서 원만한 관계로 변화한 것을 알 수 있다.

“아침에 나가다가 보고, 옆 집 살아서 보고, 싫었는데, 싫어도 서로 편하려면 양보해야지”(B, 남, 60대 후반, 한국인, 중국인 세입자를 둔 집주인)
 “동네에서 보니까 서로서로 좋은게 좋은거죠. 안 불편하고.”(L, 남, 30대 후반, 한국계 중국인, 자양4동에 거주하는 한국계 중국인)

외국인 이민자가 한국인 원주민과 생활권역을 공유하며 함께 사는 지역주민으로서의 정체성을 보이는 것(임석희, 2009)과, 한국계 중국인이 한국사회에 높은 정주의지를 보이는 특성(김현선, 2009)이 지역사회 적응에 대한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인 원주민이 외국인 이민자를 지역사회구성원으로 인식하는 점은, 외국인 이민자가 자양4동 지역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의 마찰을 최소화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자양4동의 외국인 이민자와 한국인 원주민으로 하여금 대화와 상호교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여 두 집단의 갈등을 경감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5) 자양4동 중국인 밀집지역에서의 문화적응

자양4동에서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외국인 이주민 유입초기에는 원주민들의 외국인 이주민

유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외국인 이주민과 지역 원주민이 서로에 대한 편견에서 비롯된 배제의식이 존재하였다. 그러나 자양4동의 외국인 이주민들이 한국인 원주민 이웃과 직접적인 소통을 시작하면서 서로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조금씩 해소하기 시작한다. 자녀가 있는 외국인 이주민은 같은 반 학부모와 소통을 하고, 세입자는 옆 집 혹은 앞집의 세입자와 소통을 하고, 중국음식문화거리의 상업 종사자간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등 비슷한 사회적 위치에 있는 원주민과 이주민의 소통과 교류가 증가하였다.

이것이 서울의 다른 중국인 커뮤니티, 예를 들어 가리봉동의 폐쇄적인 커뮤니티(방성훈, 2012)와 다른 점이다. 자양4동에서 원주민과 이주민의 소통과 교류 가능했던 이유는, 그 지역에 사는 한국계 중국인 및 중국인들이 다른 중국인 밀집지역보다 개방된 생활권역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자양4동에도 물론 한국계 중국인, 중국인만을 위한 식료품점, 요식업체, 서비스업종이 위치하고 있다. 하지만, 주변의 스타시티, 롯데백화점, 이마트, 로데오거리, 노론산 시장, 건대 맛의 거리 등은 이주민들로 하여금 넓은 생활권역을 형성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이주민들은 다세대 주택에서 생활하면서 마당, 옥상, 대문 등의 일상 공간을 원주민들과 공유하였고 이는 원주민과 이주민의 접촉 빈도를 높였다.

원주민과 이주민의 잦은 접촉이 서로에 대한 반감으로 작용할 수도 있었으나, 자양4동의 한국계 중국인, 중국인은 타 지역 이주민보다 체류기간이 길어 한국어가 능숙하고, 한국문화에 상대적으로 익숙하여 원주민과의 접촉에서 큰 갈등을 일으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양4동지역의 외국인 이주민은 노동자계층, 유학생, 전업주부 등 다양한 사회적 계층이 존재하여, 노동자가 다수인 가리봉동의 이주민 커뮤니티보다 개방된 형태의 커뮤니티를 보인다(방성훈; 2012).

중국음식문화거리도 처음엔 한국계 중국인 및

중국인을 대상으로 시작되었지만, 에스닉 요리에 대한 마스크의 관심, 블로그, SNS의 영향으로 한국인들의 방문이 잦아지면서 개방적인 에스닉 공간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중국음식문화거리에서 이주민 커뮤니티는 자양4동 원주민들뿐만 아니라 타 지역의 한국인과의 교류와 소통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폐쇄적인 가리봉동, 대림동의 커뮤니티와는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다.

자양4동에서의 이민자들의 문화적응은, 같은 지역주민이라는 유대감과 정주의식을 바탕으로 주류사회와 융화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자양4동 중국인 밀집지역의 특성은 한국인 원주민과 외국인 이주민의 소통과 교류, 이해와 배려를 통한 수용, 더 나아가 공생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광진구 자양4동 중국인 밀집 거주지역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한국인 원주민과 외국인 이주민의 의식변화를 문화적응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한국계 중국인과 중국인이 자양4동 지역으로 유입되는 초기단계에는, 원주민과 이주민은 서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초기에는 원주민과 이주민 간의 갈등이 발생하였으나, 자양4동의 개방적 생활권역, 그리고 이주민들과 원주민들 간의 공통의 생활공간 등은 원주민과 이주민 간의 교류를 증가시켰고, 이는 대화와 소통을 통하여 갈등을 줄이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인 원주민은 대화를 통한 갈등 해소의 가능성이 보이자 중국인 이주민을 지역구성원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하여 상호 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다. 중국인 이주민도 지역사회에 정착하

기 위하여, 그리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함께 살기 위해 적극적으로 한국인 원주민과의 대화와 교류에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외국인 이주민과 지역 원주민의 소통이 서로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경감시킬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이해와 배려를 통한 공생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본 논문은, 한국에 정주하려는 외국인 이주민과 지역주민이 서로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직접적인 소통을 통하여 서로의 문화를 수용하는 문화적응 과정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하지만, 단 기간의 조사를 통해 원주민과 이주민의 관계를 연구했다는 점에서 이 연구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향후 지역주민과 이주민 간 갈등, 소통, 관계 및 의식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중국인으로 구성된 이민자 밀집지역과 타 민족 밀집지역과의 비교 연구를 통하여, 한국에서의 이민자 문화적응 현상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작업도 향후의 연구 과제라고 하겠다.

주

- 1) 외국인 밀집지역은 외국인이 거주국의 주류사회에 편입되지 않고 상호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발전된 공간으로, 공간적으로 특정지역에 동일국가 출신자들이 밀집하여 거주하면서, 음식점, 상가 등 연관 인프라가 형성되고 사교활동과 정보교환의 중심지로 기능하는 곳을 말한다(박세훈 외, 2009; 이갑호, 2007 재인용).
- 2) 문화적응이란 '문화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새로운 문화에 지속적으로 직접적으로 접촉함에 따라 사회·문화·심리적 적응하며 발생하는 개인의 변화(Berry, 1997; 강재원, 2012 재인용)'를 의미한다.

참고문헌

강민조, 2003, 서울시 외국인 거주에 관한 공간분석, 지리

학과 지역학 전공, 건국대학교 대학원.

강재원, 2012, "다문화 호주사회의 문화적응과 민족의 고유한 스포츠문화 참가: 한인 1.5-2세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재외한인연구 27, pp.7-59.

강은택·박세훈·하성규·전명진·마강래·권오규·안아림·박선영, 2012, "국내거주 외국인의 증가와 도시정책적 함의," 도시정보 368, pp.3-23.

김민영·류연택, 2012,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지역적 분포와 사회·경제적 특성: 충청북도를 대상지역으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5(4), pp.676-694.

김영로, 2011, "중국동포 (Chinese-Korean) 집단적 거주지에 나타난 지역사회에 대한 중국동포의 인식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3(3), pp.133-156.

김의준, 2011, "출신국적에 따른 서울시 외국인 거주자의 거주지 분리," 韓國都市行政學報 24(4), pp.85-107.

김재기, 2003, "중국 동북3성 조선족 집거구의 현황과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동북아논총 28, pp.53-77.

김지현, 2008, "다인종·다민족 사회의 형성과 사회 조직-서울의 외국인 마을 사례," 한국사회학 42(2), pp.1-35.

김현선, 2010, 한국체류 조선족의 밀집거주 지역과 정주 의식, 사회와역사 87, pp.231-264.

남진, 2012, "수도권에서 외국인 거주지 분포의 특성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國土計劃 47(1), pp.85-100.

박배균, 2003, "세계화와 잊어버림의 정치: 안산시 원곡동의 외국인 노동자 거주지역에 대한 연구," 대한지리학회 2003년 춘계학술대회논문집, p.173-176.

박세훈·이영아·김은란·정소양, 2009, 다문화사회에 대응하는 도시정책 연구(I): 외국인 밀집지역의 현황과 정책과제, 국토연구.

박선영·김준형·최막중, 2012, "외국인 노동자 밀집거주에 의한 근린효과," 국토계획 47(5), pp.217-230.

박윤환, 2010, "일반논문: 수도권 지역 외국인들의 거주지 분리에 대한 연구," 행정논총 48(4), pp.429-453.

방성훈·김수현, 2012, "한국계 중국인 밀집주거지의 분화에 관한 연구-서울시 가리봉동과 자양동을 중

- 심으로,” 한국사회정책 19(2), pp.39-68.
- 서지수, 2012, “서울 대림동의 조선족 ‘통로(Portal)’로서 장소성 형성,” 地理學論叢 58, pp.49-75.
- 문성준 외, 2008, “인천 차이나타운의 역할 - 화교들의 문화변용을 중심으로,” 한국 언론학보 52(6), pp.5-24.
- 박원석, 2015, 미국 LA지역 한인 이주민의 정착경로 및 주거입지 특성.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8(1), pp.17-44
- 설동훈, 1997, 외국인 노동자와 한국사회의 상호작용,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 송도영, 2011, “도시 다문화 구역의 형성과 소통의 전개방식-서울 이태원의 사례,” 담론 201 14(4), pp.5-39.
- 안건혁, 2011, “이주회로별 수도권 외국인 거주지역 공간 분포와 영향요인-전문인력과 노동자 유형의 외국인을 중심으로,” 國土計劃 46(5), pp.233-248.
- 우양호, 2012, “일반논문: 우리나라 도시 및 지방의 내향적 국제화 수준과 그 영향요인,” 지방행정연구 26(1), pp.193-222.
- 윤인진, 2004, “코리안 디아스포라-재외한인의 이주, 적응, 정체성,” 한국사회학 37(4), pp.101-142.
- 윤형숙, 2005, “외국인 출신 농촌주부들의 갈등과 적응-필리핀 여성을 중심으로,” 지방사와 지방문화 8(2), pp.299-339.
- 이민주, 2008, 재중동포의 상업 활동과 정체성 형성: 가리봉동 현장 연구를 중심으로. 문화학 전공, 연세대학교 대학원.
- 이석준·김경민, 2014. “서울시 조선족 밀집지 간 특성 분석과 정책적 함의”, 서울도시연구 15(4), pp.1-16.
- 이영민·이용균·이현욱, 2012, “중국 조선족의 트랜스이주와 로컬리티의 변화 연구: 서울 자양동 중국 음식문화거리를 사례로,”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5(2), pp.103-116.
- 이용균, 2012, “이동자의 장소 점유와 주변화 담론 연구: 서울 자양동 중국음식문화거리를 사례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6(2), pp.218-232.
- 이혜경, 1994, “외국인 노동자 고용에 관한 연구: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학 28(3), pp.89-113.
- 이혜경, 2012, “외국인 이주자의 생활공간에 관한 연구,” 현대사회와다문화 2(1), pp.133-173.
- 임석희, 2009,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사회 적응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2(4), pp.364-387
- 전명진, 2011, “외국인 거주자의 주거입지 선택 요인 분석에 관한 연구-수도권을 중심으로,” 國土計劃 46(6), pp.117-129.
- 정수열, 2008, “인종 민족별 거주지 분화 이론에 대한 고찰과 평가: 미국 시카고 아시아인을 사례로,” 대한지리학회지 43(4), pp.511-525.
- 정수열·임석희, 2012, 도시 내 이민자 자영업의 시공간적 역동성-시카고 거주 한국인 이민자를 사례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5(3), 376-389.
- 정연주, 2001, “외국인 노동자 취업의 공간적 전개 과정: 경인지역을 사례로,” 한국도시지리학회지 4(1), pp.27-42.
- 정진경·양계민, 2004, “문화적응이론의 전개와 현황,” 한국심리학회지 23(1), pp.101-136.
- 최재현·강민조, 2003, “논문: 외국인 거주지 분석을 통한 서울시 국제적 부문의 형성,” 한국도시지리학회지 6(1), pp.17-30.
- 하성규·마경래·안아림, 2011, “서울시외국인 주거지의 공간적 분리패턴에 관한 연구,” 서울도시연구 12(3), pp.91-105.
- 함한희, 1997, 외국인 노동자의 갈등과 적응, 勞働問題論集 13, pp.99-129.
- 홍석기·김선자·이혜숙·김철민·이정은·김화진·최진영·권희서·김기범·김영래·김운혁·끝로필드·남텔게르·아니자·장성일·한정희·한지혜, (2010). 글로벌도시 서울을 위한 사회통합 정책, 서울연구원 정책과제연구보고서, p.1-419.
- Berry, J. W., 1997,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46(1), pp.5-34.
- Gibson, M. A., 2001, “Immigrant adaptation and patterns of acculturation.” *Human Development* 44(1), pp.19-23.
- Gordon, M. M., 1964, *Assimilation in American life: The role of race, religion, and national origin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Park, Robert., 1950, *Race and Culture*. Glencoe, IL: Fress

Press.

Redfield, R., Linton, R., and Herskovits, M. J., 1936, "Memorandum for the study of acculturation," *American Anthropologist* 38(1), pp.149-152.

Bourhis, R. Y., Moise, L. C., Perreault, S., and Senecal, S., 1997, "Towards an interactive acculturation model: A social psychological approach,"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32(6), pp.369-386.

웹페이지

서울특별시 서울통계 <http://stat.seoul.go.kr/> (최종 열람일: 2016년 4월 31일)

통계청 <http://kostat.go.kr/> (최종 열람일: 2016년 4월 31일)

네이버지도 <http://map.naver.com/> (최종 열람일: 2016년 4월 31일)

교신: 장원호, 0250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163,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과 교수, 전화: 02-6490-2737, 이메일: wjang@uos.ac.kr

Correspondence: Wonho Jang, Professor, Department of Urban Sociology, University of Seoul, 163, Seoul-siripdae-Ro, Dongdaegumun-gu, Seoul, 02504, Korea, Tel: 82-2-6490-2731, E-mail: wjang@uos.ac.kr

최초투고일 2016년 5월 1일

수정일 2016년 5월 17일

최종접수일 2016년 5월 20일